

“여래장 사상은 공성의 방편설”

대장경 6차 세미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여래장(如來藏) 사상은 공(空) 사상의 방편설로서 자비의 표현이며, 증생으로 하여금 공성(空性)에 도달하게 하는 이타행으로서 대승 불교의 궁극적 요리를 완성한다.”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6차 세미나에서 문물식씨(동국대 인도철학 강사)는 ‘여래장 사상에 공성(空性)의 이해를 통해 공 사상의 역사적 발전형태의 하나인 여래장 사상을 고찰하고 ‘공 사상을 떠나서는 여래장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성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의미로 간주된다면 더 이상 새롭게 여래장 사상을 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여래장 사상은 본성공성(本性空性)으로서 인법무아(人法無我)인 공 사상을 모든 증생에게 믿고 이해하도록 하는 공성의 방편설로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부조화의 현실을 완전한 조화의 현실로 바꾸는 일은 실천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원효스님, 원효스님의 이러한 삶과 화쟁(和靜)사상이 이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분단된 현실과 교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지켜보는 불자들에게 원효사상은 더욱 절실한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원효사상은 통일 등 오늘날 전반적 사회문제에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어 원효를 연구하는 각 학회와 연구원의 원효사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원효사상 학술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종교학회 ‘98정기학술발표회’에서는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의 원효학분과 발표회가 처음으로 열려 원효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학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태스님)이 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원효사상의 교학과 통일 이념’을 주제로 제3회 원효학연구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교계 원효사상 관련 연구소

연구소	대표	전화
국제원효학회	송석구	(02)260-3835
원효학회	김영태	(056)1742-9922
원효학연구원	성태스님	(056)1746-9912
원효사상연구소	심재열	(02)3672-9097
원효연구원	윤제스님	(02)457-9467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대립-반목 해결 열쇠”

원효학회-원효학원 ‘원효성사의 교학...’ 학술발표

원효학회와 원효학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발표회는 원효스님의 참정신으로 대표되는 일심(一心)·화쟁(和靜)·무애(無碍)사상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제언과 종교갈등 등의 분열현상, 반목과 대립 등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 ‘원효의 <열반경중요>에 나타난 화회(和會)의 세계’에서 “화회의 세계란 ‘화쟁’과 ‘회통’의 세계를 일컫는 것으로 <열반경중요>에는 화쟁과 회통이 하나의 논리체계를 전개되고 있다”며 “서로 다르고, 모순되어 있는 여러 가르침을 화회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모아 귀결시키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효스님 진영

이봉준 교수(동국대)는 ‘원효의 무애원통(無碍圓通)과 그 행화’에서 “우리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대면해 있는 민족통일의 문제에 있어 원효의 일심(一心)과 화쟁(和靜)사상은, 무애의 행화가 주는 사상적 안목과 실천을 따른다면 서로 다르고, 모순되어 있는 여러 가르침을 화회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모아 귀결시키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 대립을 풀어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은정희 교수(서울교대)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일심(一心)의 원리’에서 “원효가 대승 교화라는 실천수행에 뛰어든 것은 절대세계의 부인이 아니라 증생과 부처의 구분을 뛰어넘는 절대세계의 자기화승, 자리(自利) 실현이었다”며 “절대세계의 확증은 오늘날 자시비타(自是非他)의 편견과 오해, 사회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 현상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일심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원효의 <법화경>로 본 일승(一乘)에서 김영길 교수(동국대)는 “<법화경>은 한마디로 모든 갈등과 대립의 해결책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 한 힘의 논리나 정복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효스님(동국대)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이입설과 일승’에서 “원효의 ‘일승회통’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 글로벌 스타

리처드기어·티나터너등 신행 ‘열람’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스타’ 대접을 받는 글로벌 연예계 인물 중에는 달라이 라마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와 록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를 비롯해 비스티보이스, 존 바에즈 등 불자스타들이 상당수 있다.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 야후를 잘 이용하면 이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신행을 엿볼 수도 있다.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 적극적인 불교 신행 생활, 티벳 독립과 인권을 위한 사회 활동, 환경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독특한 배우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의 전기 및 연애편지, 영화 장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벳 불교에 대한 리처드 기어의 오랜 헌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요즘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서 가하는 압력에 대해 방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디즈니사와 중국의 불편한 관계는 마린 스코시 감독이 ‘룬툰’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비롯됐다. ‘룬툰’은 중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망명한 티베트의 종교·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중국 관리들은 파렴치하고 뇌물이나 밝혀야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당장 디즈니 영화사에 항의한 것은 물론 영화 제작을 강행할 경우 디즈

니 회사는 앞으로 중국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위협했다. 티벳 독립운동과 달라이 라마에 대한 변함없는 후원을 보내는 리처드 기어가 디즈니사를 지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독재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나쁜 선례가 되어 계속 따라야 한다. 강력하게 나가야만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티나 터너 무대 위에서는 록큰롤의 여왕으로, 티벳 뒷면에서는 폭력과 좌절로 살아간 티나 터너도 불교신도이다. 그녀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영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동기에 이 사이트를 통해 고독 가운데서 만난 불교와의 인연이 잘 그려져 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그 당시 만났던 불교는 일본에서 들어온 정토진종이었다. 나는 일본 선사에게서 배운대로 모범연화경을 읽으면서 힘을 되찾았고, 오랫동안 추구해 오던 정신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노래와 가사, 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녀의 종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다. 이외에도 △비스티보이스 △존 바에즈 △리치 헤이븐스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글로벌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한 인연과 신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리처드 기어 <http://www.pair.com/marilynn/gere.htm>
티나 터너 <http://www.tina-turner.com/english/index.htm>
<http://www.daus3.cee.utexas.edu/tinaturner.html>
비스티 보이스 <http://www.auburn.edu/~neils04/beastiea.html>
존 바에즈 <http://baez.woz.org/jbphotogal.htm>

“용수의 이상정치론 배우자”

이현옥씨 ‘보행왕정론’ 고찰 방법 제시

“용수(龍樹)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의 제반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상적인 정치이상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일 동국대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 제30회 추계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에서 ‘용수의 정치이상과 그 실제’로 발표한 이현옥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는 용수의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 고찰을 통해 용수의 이상정치와 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논질을 풀었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대승 경론(經論)은 보살의 육바라밀이나 십지행(十地行) 등의 수행론만을 한정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지만 <보행왕정론>은 전통성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왕이 궁극적으로 대승의 진정한 보살행을 닦아가는 모든 과정을 살피고 있다”며 “대승불교가 현실 세계에서 지향하는 이상국가의 이념과 그 실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용수의 이상정치론 첫째, 불교의 정법이 국왕의 공덕과 지혜로써 구현되는 자비와 보시의 선정정치(善政政治) 둘째, 국왕의 왕위는 개인에 의해 소유·찬탈되는 것이 아니라 자질과 덕목을 갖춘 자에 의해 후천적으로 터득되는 자

리토 인식함으로써 왕권신수설을 부인 셋째, 국왕이 범법자를 다스림에 있어 어디까지나 자비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과 자비의 교육적 효과에 목적을 두고 극형을 피하고 관대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 넷째, 공공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관리 보존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것과, 특히 혜택의 범위가 인간외의 다른 생명체까지 미치는 평등사상과 생명존중사상 주장 다섯째,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종교에 대한 공평정대하고 관대한 조치를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다종교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제시했다. 이씨는 “<보행왕정론>에 소개되어 있는 치안과 사법정책, 공공복지와 재해구호정책, 교육과 종교정책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은 오늘날의 국가정책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용수가 주도했던 대승불교운동이 세간과 출세간을 포괄하는 실천적 신앙운동이었다는 점에 비중을 둘 경우 이상국가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보행왕정론>의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 달미넷 (<http://www.dharmathac.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So, you see Dharma love is. Love is paying absolute attention to the loved one.

Being right there with them, mindful of every sound, every move, every thought and feeling.

You're kneeling on my tail.

사랑이란 그 대상에게 완벽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본질에 그렇게 나와있어.

사랑스러운 존재와 함께 하기 위해선 그 대상의 모든 소리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까지도 마음을 풀어야 해.

(고개를 잘라달라 본 도는 고양이) 지금 내 꼬리가 더 무릎에 깔려있어.

해설 보살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라면 우당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계몽과 같이 해야 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간4/408면 값 7,500원

그냥 갈수 없는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북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함락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실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수 없는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성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학을 읽고 발심, 1980년 법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걸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대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누어가고 있다.



발간처: 불교출판부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신비의 약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 한국에서는 1996년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연구하여 인공재배에 성공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아가리쿠스에서 역기스화하여 미국, 일본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FDA 승인 및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분검사 결과 아주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강작용, 세포활성화작용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암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순환기계통 :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협심증 등
소화기계통 : B형간염, 간경변, 만성위염, 변비 등
뇌신경계통 : 당뇨병, 관절염 등
호흡기계통 : 만성기관지염 등
생식기계통 :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부인병, 유방염 등

仙氣泉(골드)
· 아가리쿠스 추출액 100% (고형분 5%이상)
· 내용량 : 100ml x 30포
· 가격 : ₩660,000

아가리쿠스 건버섯
· 신도불이 한국산
· 용량 : 300g
· 가격 : ₩250,000

주식회사 아가리쿠스 · 구입문의
강남구 역삼동 668-5번지 (대)02)564-646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감을 발하는 佛자 墨(墨)과 佛자 硯(硯) 그리고 佛자그림 (수묵·채담) 특별보시!

특전
전수종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신목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묵파 방지 총연합회 인형 100% 효과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서군자 달마 佛子, 龍宇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생명의 전화 : (주) (02)242-0331, 242-0255 (야) 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경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